

부호 이론에서의 격자점 열거와 정수계획법

본 연구보고서는 제한된 무게를 가지는 선형 부호의 분류 문제를 격자점 열거와 정수계획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론을 다룬다.

• 초록

부호 이론에서 선형 부호의 분류는 기본적인 조합론적 문제이지만, 부호의 매개변수가 커질수록 계산 복잡도가 급증한다. 본 논문은 격자점 열거 알고리즘과 정수계획법(ILP)을 결합하여 제한된 무게 스펙트럼을 가지는 선형 부호를 효율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정수계획법 공식화를 Phase 0으로 도입하여 격자점 열거 단계에서 불필요한 후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계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1. 서론

선형 부호는 유한체 위의 벡터 부분공간으로, 오류 정정 능력을 특성화하는 최소 해밍 거리(Hamming distance) d 를 가진다. 실제 응용에서 특정 무게 스펙트럼을 가지는 부호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 정의:

$[n,k]_q$ -부호 C 는 유한체 F_q 위의 k -차원 부분공간이며, 부호말(codeword)은 길이 n 의 벡터이다. 비자명 부호말의 무게(1인 위치의 개수)는 특정 범위 $\{a\Delta, (a+1)\Delta, \dots, b\Delta\}$ 에 제한될 수 있다.

부호 분류의 전통적 방법은 생성 행렬 G 의 확장을 통한 격자점 열거이다. 체계적 생성 행렬 형태로 기존 부호를 확장하는데, 이때 새로운 행의 계수 패턴은 특정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 격자점 열거의 기반이 되는 ILP 공식화

격자점 열거는 다음의 Diophantine 방정식 시스템을 풀어야 한다 :

여기서 변수 $x_{i,P}$ 는 확장된 부호에서 행 공간(row span)이 P 인 열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 제약 조건들은 다음을 보장한다 :

• 무게 조건:

방정식 (1)은 모든 부호말의 무게가 $[a\Delta, b\Delta]$ 범위에 있음을 보장한다.

• 형태 조건:

방정식 (2)는 생성 행렬의 체계적 형태를 유지한다.

• 가역성 조건:

방정식 (3)은 각 기저 벡터가 필요하다.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Phase 1에서 모든 격자점을 열거한 후, Phase 2에서 추가 검사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여 ILP를 Phase 0으로 도입한다.

3. 개선된 Phase 0 ILP 공식화

정수계획법을 사용하여 확장 가능성을 사전 검사하면, 격자점 열거의 불필요한 후보를 제거할 수 있다.

조건부 제약 1 (Canon Length):

확장을 "정규 길이 확장(canonical length extension)"이라 하면, 최소 출현 열의 개수를 먼저 확인한다. 이를 이진 변수 $u_{i,P}$ 로 선형화하면...

조건부 제약 2 (무게 스펙트럼 캡):

가능한 무게가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있으면(예: $\{a_{1\Delta_1}, \dots, b_{1\Delta_1}\} \cup \{a_{2\Delta_2}, \dots, b_{2\Delta_2}\}$), 다음을 사용한다. 여기서 $z_{i,j} \in \{0,1\}$ 은 각 초평면에서 사용할 무게 범위를 선택한다.

4. 계산 결과

제안된 방법의 효과를 구체적 사례로 보인다.

사례 1: 2-무게 부호의 비존재성

프로젝티브 2-무게 $[\leq 34, 3, \{28,32\}]_8$ -부호를 찾는 문제를 고려한다. Phase 0 ILP 검사를 통해 여러 불가능한 후보를 제거한 후, 격자점 열거를 수행한다.

결과: 유일한 $[34, 3, \{28,32\}]_8$ -부호를 발견하였으며, 확장 불가능함을 확인했다. ILP 계산: 5.6시간, 1,633,887개의 분기-한계 노드 검사.

사례 2: 대규모 부호 분류

$[74,3,\{56,64\}]_4$ -부호에서 $[76,4,\{56,64\}]_4$ 로의 확장을 고려하면, Phase 0 없이는 1,087,803개의 부호가 격자점 열거로 구성되었으나 나중에 제거되었다. Phase 0 ILP는 이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계산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결과: 정확히 5개의 동형 불가능한 $[76,4,\{56,64\}]_4$ -부호를 발견했다.

사례 3: Δ -분할 가능 부호

8-분할 가능 $[n,k]_2$ -부호의 프로젝티브 버전이 존재하는 길이를 특성화한다. Phase 0 ILP 공식화:

여기서 분할 가능 조건이 자동으로 고려된다.

5. 방법론의 일반화

제안된 Phase 0 ILP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다 :

1. 선형 부호 이외의 적용:

덧셈 부호(additive codes), 비선형 부호에도 확장 가능하다.

2. 다른 거리 메트릭:

Lee 거리, Hamming 거리 외 다른 메트릭에도 적용 가능하다 .

3. ILP 솔버의 활용:

Gurobi, CPLEX와 같은 상용 솔버를 직접 사용하여 격자점 열거 없이 격자점을 세는 것도 가능하다 .

특히 복잡한 제약 조건을 가진 부호의 경우, 전체 ILP를 Phase 1 없이 직접 풀 수도 있다 .

6. 결론

본 논문은 부호 분류 문제에서 정수계획법의 효율적 활용을 보였다. 격자점 열거의 사전 필터링으로서 Phase 0 ILP 공식화는 계산 시간을 수십 배 단축할 수 있다 . 이 방법론은 부호 이론의 여러 조합론적 문제로 확장 가능하며, 대규모 부호 분류의 계산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 향후 연구는 병렬 처리 및 휴리스틱 접근법과의 결합을 통해 더욱 큰 규모의 부호 분류를 목표로 할 것이다.